

목포 '동본원사' 철거 논란 가열

(현 중앙교회)

중앙교회, 철거 승인서 시에 제출
신도·시민단체 "절차 무시했다" 반발

일본식 사찰건물인 목포시 무안동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현 중앙교회)에 대한 중앙교회 측의 자진 철거 신청서가 목포시에 제출돼 철거·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목포시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열악한 교통기반시설을 해결해 달라는 무안동 주민들의 권의를 받아들여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도심상가 녹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철거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문화재청이 지난 달 27일 '동본원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반면 동본원사 목포별원의 소유주인 중앙교회 측은 지난 달 20일 교인 200명 가운데 철거 찬성 181명, 반대 14명의 의견을 모아 철거승인서를 시에 제출했다. 중앙교회측은 건물보상비 포기는 물론 철거비용까지 자체

부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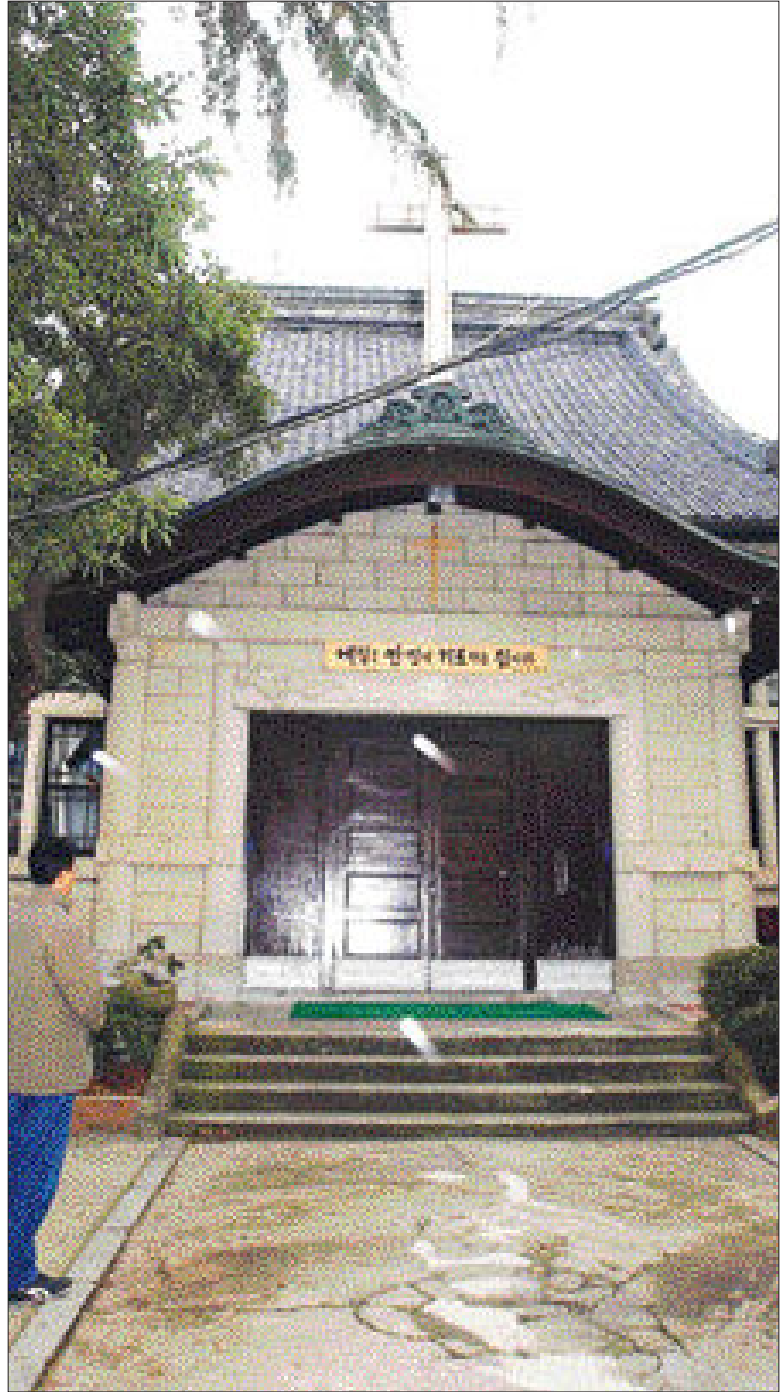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최근 철거승인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신자들은 "보통 1주일 전 주보를 통해 주요 안건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하던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의 당일 다급하게 동본원사 자진 철거 안건을 논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중앙교회의 갑작스런 철거 신청서 제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목포시가 교회 측이 직접 철거하도록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죽동 주민 A씨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철거나 보존이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1930년대 세워진 목포지역 대표적 근대 건축물인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최근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 건물의 철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정착 순조

목포시 공무원, 노선·환승 홍보 도우미 나서

혼란이 예상됐던 목포시의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도우미로 나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전면 실시된 1일부터 공무원들을 승강장에 배치해 노선 및 무료 환승 안내 역할을 맡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첫날인 지난 1일에도 200여 공무원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근무한데 이어 초, 중, 고등학교 대부분이 개학한 3일부터 900여 명의 직원들이 시내 450개 승강장으로 출근, 2시간 동안 안내를 했다.

학생 등 시민들은 바쁜 버스 노선과 환승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했다.

교통행정과 심인섭 과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선 개편과 무료 환승제에 대해 사전 홍보했으나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나섰다"면서 "승강장에서 책자를 배부하며 안내를 한 결



목포시 공무원들이 1일부터 5일까지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전면 시행된 무료 환승제에 대한 도우미로 나섰다.

과 아직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5일까지 출·퇴근 시간에 승강장에서 계속 무료 환승 안내를 실시했다.

시는 이미 무료 환승제 안내책자 9만 5천 부와 포켓용 2만 부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혼란을 줄

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23개 전 노선에 대한 무료 환승제 실시로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결국 노선 정비로 버스 이동 거리를 평균 2km 이상 각각 단축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유달산서 활쏘기·물지게 체험을"

'목포 유달산 축제' 30일 열려
강강술래, 4·8만세운동 재현도

올해 유달산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불향기, 바다향기 넘실대는 목포로' 라는 슬로건 아래 유달산과 북항동 회 타운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서남권 핵심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목포의 밝은 미래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관광문화축제로 개최된다.

축제 첫째 날인 30일에는 즐거운 오후 3시 라디오 공개방송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야경을 장식한다.

둘째 날은 임진왜란 당시 전술 요충지였던 노적봉

에서 강강술래 공연과 4·8 만세운동이 재현되며 유달산 축제 축하쇼가 펼쳐진다.

셋째 날은 목포 시립교향악단의 관악 앙상블 특별 공연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 이어 주민자치센터 공연, 그리고 빅밴드 7080 공연으로 축제의 휘날레를 장식한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양뿔을 타보는 인공양뿔 체험과 유달산 전설에 나오는 유달장수 활쏘기 체험이 준비되며 꽃오리 전시 및 시식, 디카 사진촬영, 근대 목포 서민 생활상을 알아보는 유달산 물지게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꾸며진다.

또 생선회를 주제로 한 북항동의 북항 회 축제와 서남권 자매결연지 특산물 판매장, 목포특산물 판매장 등도 운영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한전, 목포공고에 매년 3천만원 지원

성적 우수한 학생 14명에
1,400만원 장학금 전달도

한국전력이 지난 2일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 14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총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한국전력은 또 올해부터 매년 3천만원씩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산업자원부 주관 산·학 협력 우수사업고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국전력과 전남지역 우수



실업고교로 선정된 목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전력은 중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험고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해양오염 사고 피해 최소화 선진국형 방제시스템 구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해안 해양오염 방제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청)은 대형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 기름이 유출될 경우 과학적으로 확산 지역을 예측해 방제 우선순위 등의 방제 전략을 세운다는 것. 이를 위해 선진국형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국내 최초인 이 시스템은 서해해경청에 이어 부산해경청에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유출유 확산예측(GNOME) 기술을 벤치

마킹한 이 시스템은 관계기관의 해조류 정보 및 기상정보를 이용해 해상 유출유의 이동,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사고지점 인근 해역의 어장, 양식장 및 산업, 경제시설 등 민간 자원에 대한 피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다양한 방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양오염 발생시 피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해 예상지역을 신속히 예측,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해상에 서 기름, 폐기물을 몰래 버릴 경우 유출지점을 역추적해 투기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도 이용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대회

목포시가 5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청렴개선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안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양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홍성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합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아외 결혼식 가능

(부부)

관광버스음식 대접

(객중·반주)

☎ (062) 282-2278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새종 차량용품 진품목 시가 판매!!!

▶ 신차용 엔진 오일	▶ 차량용 에어컨 필터	▶ 차량용 와이퍼
▶ 차량용 타이어	▶ 차량용 브레이크 패드	▶ 차량용 배터리
▶ 차량용 스텝	▶ 차량용 와이셔츠	▶ 차량용 장갑
▶ 차량용 모자	▶ 차량용 양말	▶ 차량용 신발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 367-5779

☎ 367-5788